

최준, 일냈다



12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콰도르와의 2019 U-20 폴란드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최준이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U-20 월드컵 에콰도르전서 결승골... 한국, 결승행 16일 오전 1시 우크라이나와 우승컵 두고 결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남자 축구가 FIFA 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정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12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콰도르와의 2019 U-20 폴란드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최준(연세대)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선배들이 1983년 멕시코대회에서 4강에 올랐던 것을 뛰어넘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랐다.

이탈리아를 1-0으로 제압한 우크라이나와 우승을 다툰다. 결승전은 16일 오전 1시에 벌어진다.

한국 남자 축구가 FIFA 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1983 U-20 멕시코대회와 2002 한일월드컵에서 성인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게 종전 최고 성적이다.

여자 축구는 FIFA 주관 국가대표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2010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U-20 여자월드컵에서는 3위에 진출했다.

또 아시아 국가로는 카타르, 일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U-20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카타르는 1981 호주대회, 일본은 1999 나이저리아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모두 준우승에 만족했다. 결승에서 카타르는 서독에 0-4, 일본은 스페인에 0-4로 패했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1골 2도움으로 필립 날았던 이강인(발렌시아)은 결승골을 도우며 활약을 이었다. 이번 대회 4번째 도움이다. 1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수비수 최준은 한 차례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결승골로 연결했다.

에콰도르는 FIFA 랭킹 59위로 한국(37위)보다 아래에 있다. B조 3위로 어렵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지만 우루과이(16강), 미국(8강)을 연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한국은 9일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무려 120분을 소화했다. 체력 부담이 적지 않았다.

에콰도르가 볼 점유율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갔다.

한국에 운이 따랐다. 에콰도르는 전반 38분 역습에서 캄파나가 골포스트를 때리는 한 톱포 빠른 중거리슛으로 한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게 했다.

그러나 위기 뒤 찬스였다.

한국은 전반 39분 프리킥 기회에서 이강인이 에콰도르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패스했다. 수비가 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빠른 땅볼 패스를 찰리했고, 최준이 정확한 오른발 슛으로 에콰도르의 골네트를 갈랐다.

한국이 1-0으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정정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에콰도르가 강한 압박을 펼치자 8분 김세운(대전)을 빼고 조영욱(서울)을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조영욱의 활동력을 바탕으로 에콰도르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크로스로 에콰도르를 위협했다.

후반 17분에도 고재현(대구)이 역습 기회에서 중거리슛을 때렸지만 골문을 살짝 외면했다.

이강인이 탁월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역습을 전개했다.

수비는 에콰도르의 끊임없는 공격을 몸을 사리지 않으며 막았다. 간간히 역습을 노렸다.

후반 41분 엄원상(광주)이 역습을 잘 살려 추가골을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노골이 됐다.

에콰도르도 후반 추가시간에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판공(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선언을 받았다.

끝까지 이광연(강원)은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슛을 선방하며 승리를 지켰다. /뉴시스

‘김제 골프 동호인 큰잔치’

- 김제시장배 골프대회 성료
- 남자 스트로크부분 이형일
- 여자 스트로크부분 오귀순
- 남자 신페리부분 정진욱
- 여자 신페리 조혜자 1위

김제시골프 동호인들의 큰잔치인 '제1회 김제시장배골프대회'가 김제시골프협회 주관으로 12일 18홀 동시타입으로 김제스파일스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제시골프 동호인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골프 활성화 및 저변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클럽 선수와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김제시골프협회가 주최한 '제1회김제시장배골프대회'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부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서백현, 이병철, 노규석, 고민정, 이정자, 김주택 시의원을 비롯한 나인 권 도의원, 허남근김제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첫 대회를 축하와 함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대한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골프규칙 및 M 카운터 스파일스CC의 로컬룰을

적용해 남자부/여자부로 구분하여 스트로크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골프 동호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김제시장배골프대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골프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생활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유승 김제시골프협회장은 "첫 김제시장배골프대회가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골프 동호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훌륭한 생활종목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각 클럽을 대표한 160명의 남녀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남자스트로크부분 이형일 선수가 1위의 영광을 안았고, 박진영 선수 2위, 안용선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스트로크부분에서는 오귀순 1위, 서민형 2위, 유미선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기량을 보였다.

남자 신페리부분에서는 정진욱 1위, 고현창 2위, 김원중 선수가 3위를 차지하고, 여자 신페리에는 조혜자 1위, 김순정 2위, 최정희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뽐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학운동부 평가·지원 전국 '상위'

호원대 스포츠탈단, 전국 100개 대학 중 7위 선정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스포츠탈단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2019년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100개 대학 중 7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부 종합평가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대학별 운동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나누어 심사위원회 심의 및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호원대 스포츠탈단은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총 1억 4245만 원을 확보해, 대학운동부 육성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 엘리트 스포츠 진흥에 투자할 예정이다.

강희성 총장은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로 5년 연속 상위권(2018년도 전국7위)에 오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선수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운동에 더 집중해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찬(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탈단장은 "평가를 잘 받은 만큼 올해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우리대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교장의 긍지와 학교 명예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계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스포츠탈단은 전문스포츠 7종목(검도, 야구, 우슈, 씨름, 축구, 태권도, 펜싱)과 생활체육종목 5종목(무에타이, 탁구, 배드민턴, 합기도,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